

■ 2025년도 아르코양상블 사업 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양상블 사업
- 회의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11: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지현, 박상현, 배종훈, 이석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양상블 사업’은 청년층의 문화예술계 진입을 유럽과 미주에서 유학 및 활동을 하는 음악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음악가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K-문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민족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콩쿠르 출신의 소수의 유명 K 클래식 솔로 연주자들만이 주목받는 가운데, ‘아르코 양상블’ 사업은 많은 실력 있는 청년 음악가들에게 큰 희망과 격려,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학과 활동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는 음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재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아르코 양상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럽에는 많은 연주 페스티벌과 공연 기회가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경비 지원이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청년 음악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들의 커리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갈망하는 청년 음악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들의 실력이 유럽과 미주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르코 양상블을 통해 흩어져 있는 한국 청년 음악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문화 외교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큼니다. 한국의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문화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명:

배종훈  (서명)

박상현  (서명) KTG 2020

이석준  (서명)

김지현  (서명)